

예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사는 것

2022년 8월 21일 설교

오스틴 주전자

베드로전서 2:4-12

제 이름은 Austin Kettle이고 여기서 몇 마일 떨어진 McLean Presbyterian Church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예전에 One Voice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지난번에 제가 New City Catechism을 가르쳤을 때 저는 매우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내 레이첼과 4년 동안 살았던 미얀마 기독교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이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주로 분쟁이 많은 지역에서 전국 각지에서 왔습니다. 아이들은 5~6개의 다른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그들에게 영어 문법을 가르쳤고 우리는 언어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것들을 New City Catechism을 통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주 질문과 답을 읽고 성경 구절을 영어로 읽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은 언어 그룹으로 나뉩니다. 각 그룹은 자신의 언어로 경전을 읽은 다음 질문과 답변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해 말에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전체 교리문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 교리문답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방문하는 것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언어에서 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저와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2021년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이 아이들 중 많은 수가 그들이 바라던 미래를 잃었습니다. 교육 기회는 사라졌고 경제는 붕괴되었으며 내전은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New City Catechism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것에 대한 훌륭한 요약입니다. 이제 34번 문제를 읽고 그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34문: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으니 우리가 여전히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질문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겠습니까? 질문에 답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은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영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읽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4~12(NLT)

4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의 살아 있는 모퉁잇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큰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5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의 영적 성전으로 건축하고 계신 산 돌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그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6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극히 존귀하게 택함을 입은 모퉁잇돌을 예루살렘에 두리니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7 그렇습니다. 그를 신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예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잇돌이 되었습니다.”

8 또 ”그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실족하여 그들에게 예정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9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로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라는 신분이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신은 자비를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11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임시 거주자와 외국인”으로서 여러분의 영혼과 전쟁을 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12 믿지 않는 이웃과 더불어 바르게 살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악을 행한다고 고발할지라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분명히 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의 일부는 과거이고 일부는 현재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을 인식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결정을 비이기적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근면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삶의 끝에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역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나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때로는 억압이나 악한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 반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정으로 좋은 통치자에게 반역하면 반역은 모든 사람에게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지혜로우십니다. 그는 결코 부패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악자를 위해 싸우고 고통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통치자이시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벌을 짊어지셨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본문의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린바 되셨으나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택함을 입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반역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망가진 차를 수리하거나 그와 비슷한 것을 수리하기 위해 지갑을 꺼내지 않고 한 달치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정말로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신 완전하고 사랑스러운 왕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예, 그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은 우리가 그를 위해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구속함은 과거에 일어난 일 이상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신은 역사적으로 구속을 받았지만 또한 현재에도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살도록 당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 "너희는 하나님이 그의 신령한 성전으로 건축하고 계신 산 돌이니라.

더욱이 당신은 그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는 우리를 함께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 영광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지금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형벌을 받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었으며 당신 안에 살기 위해 자신의 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있는 내용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 "누구든지 그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나타나는 날에 그의 백성이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어떤 것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령은 지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심판 날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고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절망과 두려움과 공허함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희망과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둘째, 우리는 믿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므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7-9절에서 발견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임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위한 의무는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돌보는 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나쁜 일입니까? 아니!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주인이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주 비행사가 불공평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믿는다면 우주 비행사가 사는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당신은 훈련하고, 견디고, 몇 달을 혼자 보내고, 탈수된 음식을 먹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힘든 일을 하고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영광이기도 합니다. 7-9절을 보십시오.

7”그렇습니다. 그를 신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예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잇돌이 되었습니다.”

8 또 ”그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실족하여 그들에게 예정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9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로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르게 살라고 부르실 때 영광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존귀하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존귀를 함께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이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화내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같은 부름이 보이십니까? 9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영광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

니다. 그의 백성의 네 이름은 각각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선택된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차이와 함께 우리를 그의 것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Royal은 왕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만왕의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왕의 제사장이고 할 일이 있습니다! 사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영예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Peter는 두 개의 이미지를 더 가지고 이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로 존경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한다면 어려운 일에도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조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특별한 소유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또한 특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 간증으로 순종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겨우 살아남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믿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10절은 이러한 느낌을 인식하지만 일어난 큰 변화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라는 신분이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신은 자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수로 가득 찬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긍휼을 받았다고 읽습니다.

그런 다음 11절과 12절은 우리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으므로 우리의 삶과 결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길 잃은 사람들처럼 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들으십시오.

11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임시 거주자 및 외국인”으로서 여러분의 영혼과 전쟁을 하는 세속적 욕망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12 믿지 않는 이웃과 더불어 바르게 살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악을 행한다고 고발할지라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리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선택권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과 하기로 선택한 것에 의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거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생활”을 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택할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틀렸고, 어리석고, 심지어 나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가 됩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서로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증거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과 생활 방식에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하고 반역자로 살기로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그의 탁월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네 마음을 따르라”는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명예로운 지위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행동과 삶을 의미 있고 결과적이며 중요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매우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하고 특권으로 순종합니다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칭찬 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실패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없었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One Voice Fellowship